

KOSPI 6,269.00 (-4.95%)

KOSDAQ 745.63 (+3.59%)

NASDAQ 25,373.85 (+1.00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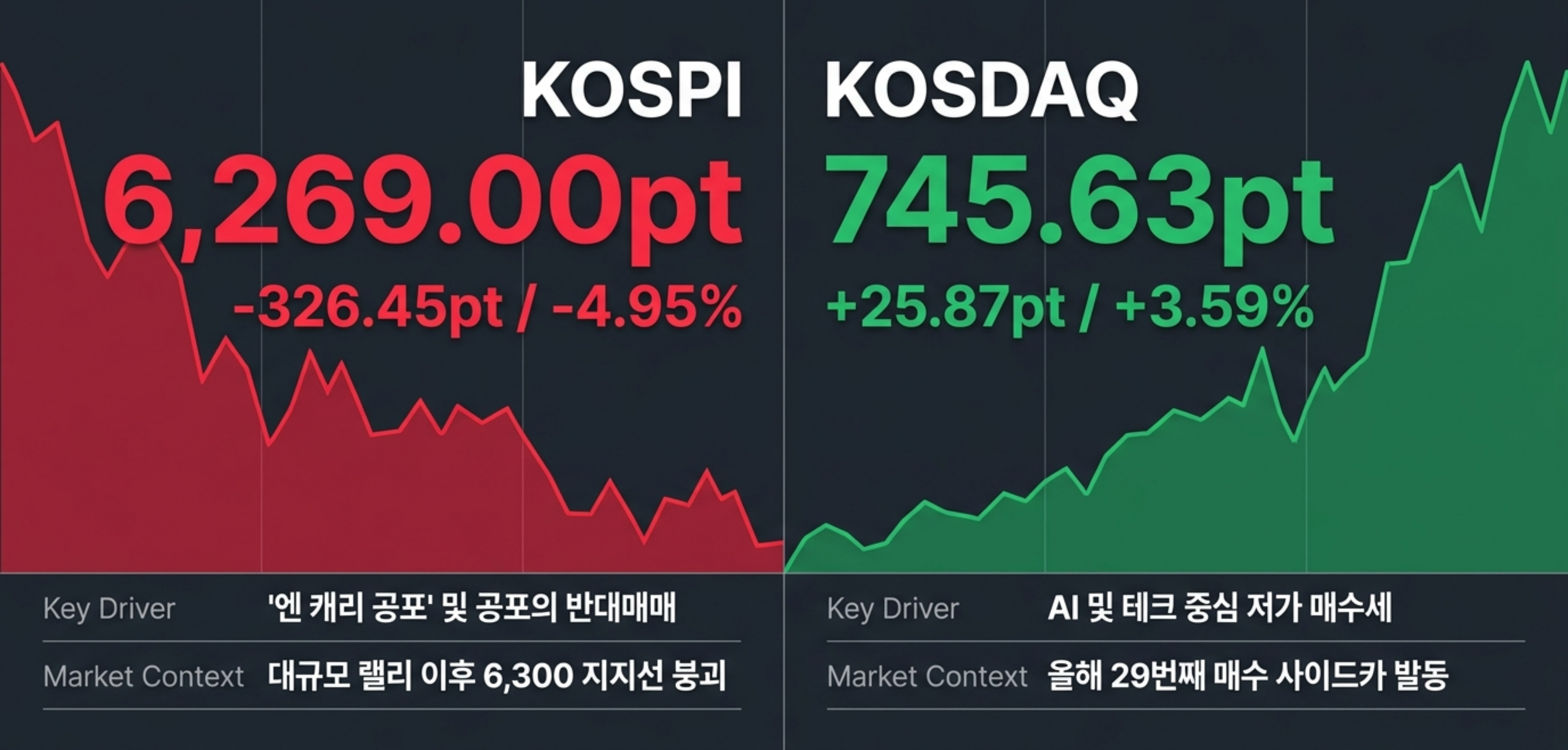
WTI \$80.55 (+\$2.62)

[장중 업데이트] 글로벌 시황 브리핑 & 전략

2026년 8월 3일 13:00 기준 Flash Repor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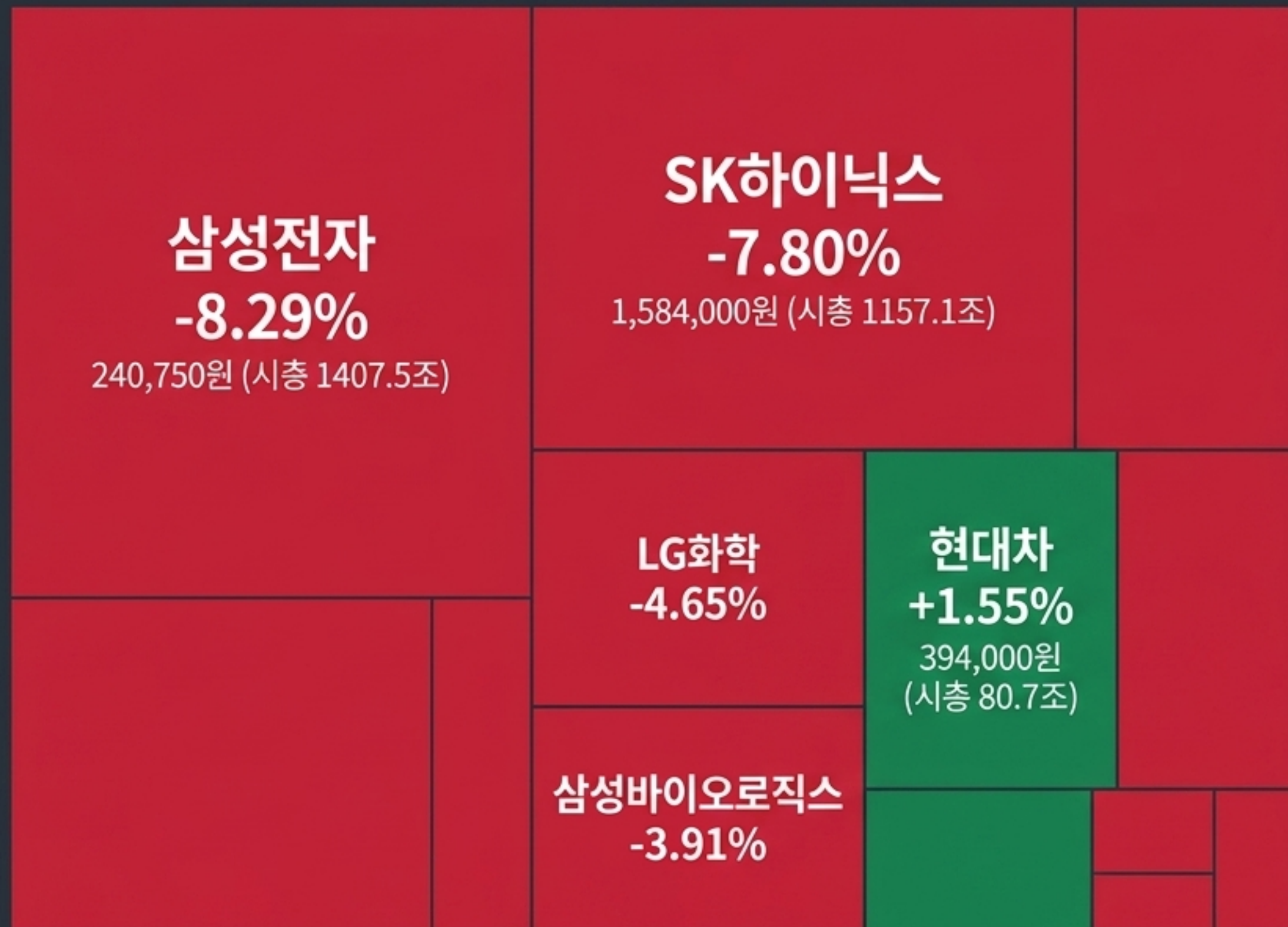


엔-캐리 청산 공포로 인한 대형주 패닉 셀링과,
AI 펀더멘털 신뢰 회복이 교차하는 극단적 디커플링 장세.



시장 시스템의 붕괴가 아닌 **유동성의 극단적 이동**. 개인 투자자 홀로 **2조 원** 순매수하며 **저가 매수세** 유입 중.

HEATMAP: 코스피 대형주 (시가총액 기준)



모건스탠리의 역발상

펀더멘털 훼손 없는
과도한 매도세.

코스피 '비중 확대' 권고 및
36% 추가 상승 여력 전망.

1-Day Return (1D)

강한 반등

섬유의복 (+5.00% 1D / -1.44% 1W) ●

제조업 (+4.31% 1D / -3.17% 1W) ●

구조적 방어주

● 증권 (+5.97% 1D / +0.58% 1W)

● 의약품 (+3.82% 1D / -2.76% 1W)

패닉 셀링

● 유통업 (-5.26% 1D / -5.67% 1W)

● 화학 (-1.61% 1D / -5.91% 1W)

● 전기가스업 (-1.46% 1D / -4.82% 1W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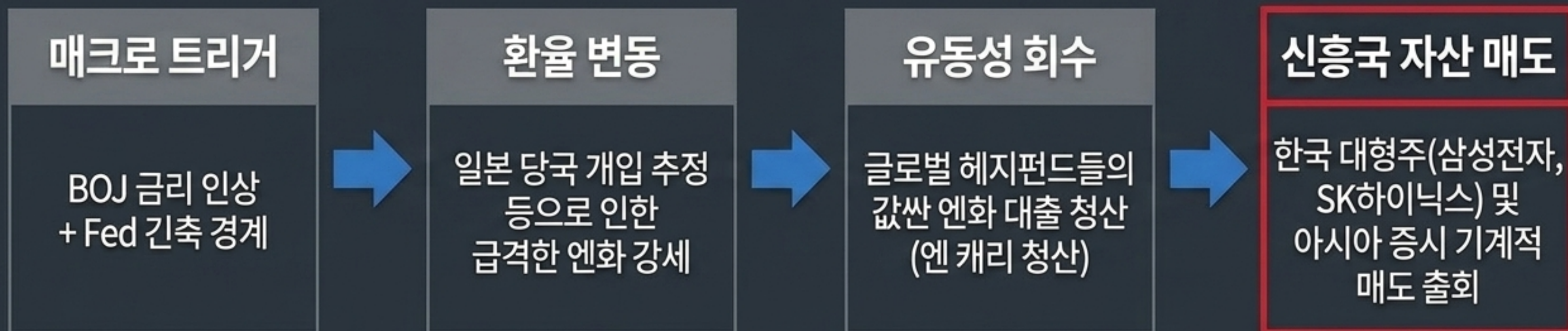
지크 셀링

TAKEAWAY

증권 및 의약품 섹터가 테크/반도체 매도세 속에서 강력한 방어주(Safe Haven) 역할을 수행 중.

1-Week Return (1W)

“Yen Carry” unwind mechanism



기업의 실적이나 본질 가치 하락이 아닌, 거시적 유동성 이벤트(Macro Liquidity Event)에 의한 가격 왜곡.

DOW JONES



52,485.03 (+2.64%)

NASDAQ



25,373.85 (+1.00%)

S&P 500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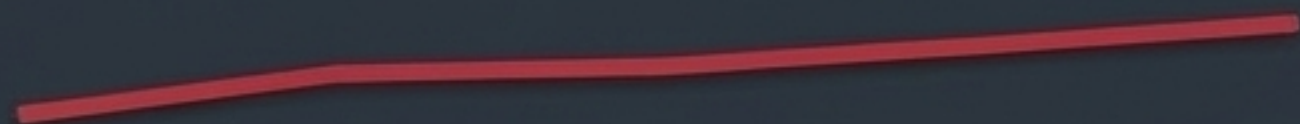
7,437.63 (Flat 0.00%)

아마존(Amazon) 실적 호조 및
빅테크 AI 수익성 증명.
AI 펀더멘털에 대한
투자자 신뢰 완전 회복.

테슬라 (Tesla): -37% 급락.
전문가들 저점 매수 유의 경고.
스페이스X (SpaceX): 첫 실적 발표를
앞두고 극심한 변동성 예고.

미 국채 (Bonds)

10Y Yield: 4.70% (+5bp)



FOMC 매파적 기조 유지

원자재 (Commodities)

WTI 원유: \$80.55 (+\$2.62)



트럼프 대이란 공습 보류 발언으로 7% 급락 후 80달러선 방어

환율 (FX)

원/달러: ₩1,445.00 (-5.30원) | 달러인덱스: 0.5 (-0.32)



유로 강세 및 달러 약세로 원화 일시적 반등

안전 자산 (Safe Havens)

금(XAU) / 비트코인(BTC): 동반 \$103,000 돌파



지정학적 불안과 ETF 순유입이 맞물린 헤지 수요 폭발

JAPAN & KOREA

KOSPI: -4.95%
Nikkei 225: -0.27%

Note: 미·일 환율 개입 및 엔고
전망으로 수출주 타격 집중.

CHINA & AUSTRALIA

Shanghai: +0.45% / Shenzhen: +0.62%
ASX 200: +0.52%

Note: 엔-캐리 리스크에서 완전히
디커플링된 상승 모멘텀 유지.

EUROPE

STOXX 50: +0.62% / DAX: -0.27%

Note: 방산주 강세 및 우크라이나 평화협상
기대로 유로존 방어력 입증.



저가 매수 기회 (Buy the Dip)

코스피 대형주 급락은
환율 충격에 의한 기계적 과매도.

모건스탠리의 36% 상승 전망 기반,
외인/기관과 동행하는 반도체·자동
차 대형주 저가 분할 매수.



테크/AI 롱 포지션 (Tech/AI Long)

코스닥 매수 사이드카와
나스닥 랠리는 AI 현금흐름에 대한
근본적 신뢰 증명.

AMD, 우버, 팔란티어 등
실적이 증명된 테크 ETF
비중 확대 유지.



포트폴리오 다변화 헤지 (FICC Hedging)

트럼프 발언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
유가 변동성 지속 예상.

달러 약세 국면을 활용하여
금(Gold)과 비트코인(BTC)을
구조적 헤지 자산으로 편입.

변동성은 가치의 상실이 아닌, 자산의 이동입니다.